



Analyst 김도하 · 02-3773-8876 · doha.kim@sk.com

Issue Comment

- ✓ 완전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에 유상증자 7,000 억원 결정
추가적인 증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
- ✓ 비은행 계열사 비중확대 기조 및 증권업황 고려 시
이번 증자 결정은 긍정적으로 판단

하나금융지주: 증권사 유상증자는 비은행 계열사 강화의 step

- 하나금융지주, 100%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에 7,000 억원 유상증자 결정 공시. 하나금융투자의 '17 년 말 자기자본은 1 조 9,967 억원이며, 배당지급액 차감 및 증자 금액 합산 시 예상 자기자본은 2 조 5,462 억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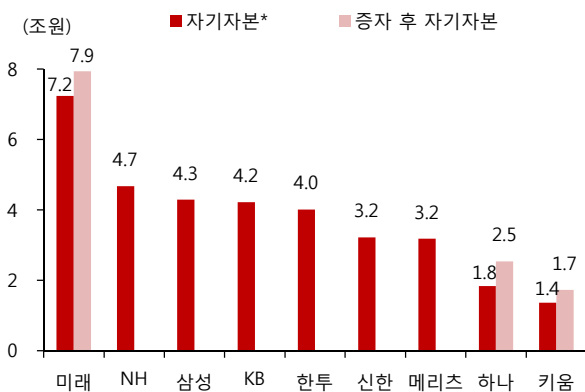
-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위해 자본 규모에 따라 업무범위를 차등(*)하면서 최근 2 년 간 증권사 인수합병 또는 유상증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 업종 환경을 고려하면 하나금융투자의 증자는 필요했던 수순이나, 증자 이후의 자본 규모와 이익 체력 (연 1,000 억원대 후반 예상) 감안 시 추가적인 증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

(*초대형 IB 육성방안: 자기자본 4조원 이상 → 단기금융 허용, 8조원 이상 → 종합투자계좌 허용)

-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 월 하나캐피탈('17 년 ROE 13%) 지분 49.9%를 인수해 완전자회사화했으며, 하나 UBS 자산운용 (15%)의 지분 51% 인수 계획도 남아있음. 은행 통합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비은행 계열사 비중확대 노력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. 1 분기를 중심으로 증권업종의 견조한 이익 증가가 기대(*)되며,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자본력이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임을 고려하면 이번 유상증자 결정은 하나금융지주의 이익 기반 확대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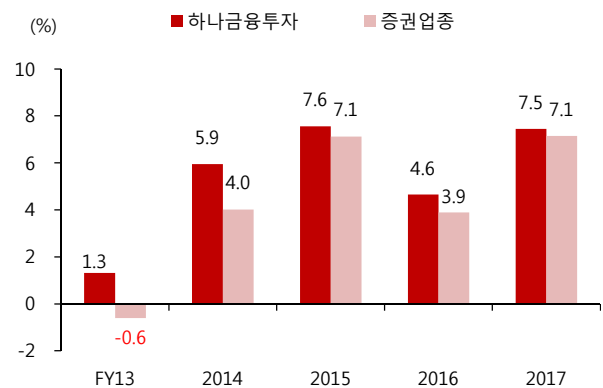
(*상장 대형 증권 4사 이익성장을 컨센서스 '18년 +13% YoY, 1Q18 +37% YoY)

주요 증권사별 자기자본 규모


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 SK 증권 / 주: *신한 외 '17 년 결산 배당금 차감함

하나금융투자 지배 ROE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